

8·25 稅制 개편

감세서 증세로... 재정 적자 막는다



윤중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과천 청사에서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소득·전문직 탈세 막고 MB정부 '親서민' 기조 반영

■ 세제 개편 배경

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 세제 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재정 악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쫓다 보니 경제적 취약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겨냥해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세원을 찾아내는 비대칭적 정책이 나타난 게 특징이다. 친(親)서민 코드 가 확연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감세와 증세가 엇갈린 모양새를 보였지만 무게 중심은 비과세·감면의 부분 철폐와 세원 넓히기를 통한 사실상의 증세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자감세'로 불리던 감세 일변도에서 고소득층,대기업을 향한 증세 조짐도 엿볼 수 있다.

◇친서민 뚜렷=정부는 지난해 서울인하로 34조원 규모의 감세를 한 만큼 그간의 감면 혜택을 거둬들이는 후속조치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비과세·감면 규모는 작년 한 해에만 29조6천억 원이나 된다.

이런 기조 하에 서민·중산층을 배려하다 보니 고소득·대기업이 타격을 받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명을 다하고 부동산을 판 뒤 두 달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 10%를 깎아주는 제도도 없어졌다.

두 제도의 연간 감면 규모는 각각 2조원과 1조원 안팎이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혜택은 줄줄이 연장됐다.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

율을 적용하는 특례와 농어가 목돈마련지출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2년씩 연장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이 그 예다.

◇고소득 전문직 정조준=비과세·감면 축소와 함께 역점을 둔 것은 세원 늘리기다. 주된 방향은 고소득층, 전문직에 대한 과세 그물망을 넓게 펼치는 쪽으로 맞춰졌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 한의사 등 '사'자가 붙는 전문직들과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실효성을 위해 '세(稅)파라치'제도를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소득·법인세율 불세=정부는 세제개편안 원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 작년 세제개편에 따른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감소분이 각각 1조5천억원과 3조5천억원인 만큼 세율 추가 인하를 유보하자는 의원들이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율 문제는 재계가 반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문제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된 집단의 반발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세수증가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고소득·대기업이 90.6%(9조5천억원), 중산층·중소기업이 9.4%(1조원)을, 작년 분투 기준으로는 각각 79.6%(8조4천억원), 20.4%(2조1천억원)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 고소득·전문직 탈루억제

정부가 25일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억제하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걸으려고 꺼내 든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과액을 위한 인프라 보완,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 때 과태료

현금영수증 미발급엔 과태료 물려

부과 등이다. 정부는 일일금액액 이상 거래 때 사업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때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로부터 500만원의 수술비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대신 400만원으로 깎아줬다가 적발되면 400만원

하지만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런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세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도 강화돼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가전제품에 개세세 부활

정부가 25일 세제개편안에서 전기를 많이 먹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부과안을 내놓은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이뤄진 조치다.

이를 통해 걷은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고풍을 제품 구매를 돕겠다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이다. 냉장고는 1999년 12월 폐지된 지 10년이 만에, 2004년 9월 가전제품에

냉장고·에어컨·TV 등 5% 稅 부과

대한 특세세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부과 대상이던 에어컨도 5년여 만에 각각 개세세가 부활하는 셈이다.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과세기준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아니라 소비전력량으로 잡기로 했다.

세율은 5% 단일세율로 정해졌다. 실제 추가되는 세율 부담은 개세세액에 붙는 교육세 등

■ 부가세 과세 대상 확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와 쌍꺼풀 수술비가 10%쯤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상 10%인 부가세 과세 대상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우선 내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그동안에는 교육 용역의 하나로 보고 면세해 왔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 시설학원은 공익적 성격이 약하다고 보고 과세하기

운전학원 수강료·쌍꺼풀 수술비 과세

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원의 수강료에 10%의 부가세가 붙으면서 수강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부터는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흡입술 등에 부가세가 붙으면서 수술 비용도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

수익자의 애원동물 진료에도 내년 7월부터

■ 금융상품 세혜택 대폭 축소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가 부활한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내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었던 각종 금융 관련 세제는 올 연말로 종료된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립된 펀드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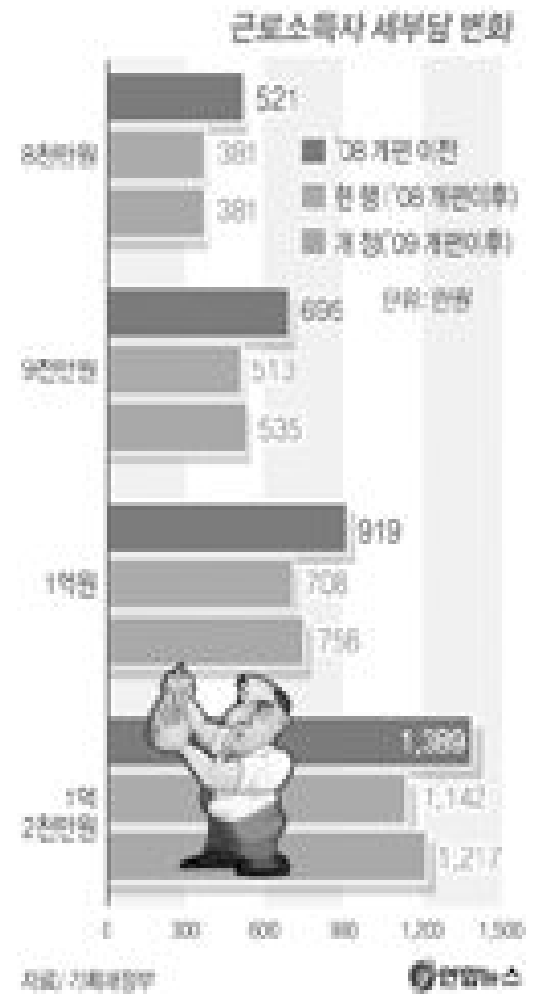
해외펀드 비과세 적용 연장 않기로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및 평가 손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이 올 연말로 끝난다.

해외펀드 비과세 적용 시한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 혜택도 올 연말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른 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과세한다.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증권거래세도 부과된다. 일반 증권거래와 같다는 판단에 따른 것

세제개편 효과 및 변화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무소

(용봉동 하이마트 옆 육교 바로 아래)

매도, 매수 ☎ 011-641-0925
상담환영 062)515-4985

● 추천 금매출건 - 펜션부지최적 ●

월출산 국립공원 입구 대지면적 7,665㎡ 가든식당 매매
-식당 (연회석 300석 완비 - 피로연, 회갑연, MT회적),
체육시설 (수영장, 족구장), 농장 (멧돼지, 오리, 토종닭),
단란주점, 숙박업 - 현 상업중, 모든시설 허가됨
-매매가 3.3㎡당 32만원-

■ 고시텔매매 ■ (금년 5월 준공, 최신시설, 풀 옵션)
대 282㎡ / 건 560㎡ 총 52실(룸 당 월 23만원)
전대 후문 건너 체육공원 인근 -매 8억 5천

임 야

▶ 16,925㎡(계획관리지역) - 나주 남행(충흥스파랜드 입구)
- 매 3.3㎡당 8만5천원

대 지

▶ 683㎡(제3종 일반주거지역) - 남구 진월동(광주대 인근)
- 매 11억

▶ 914㎡ - 용봉동지리지구 현대 3차 앞 - 매 3.3㎡당 300만원

상가주택

▶ 대 496㎡/건 1487㎡(6층건물)-오차동 아파트단지 입구
-매 17억

※ 사원모집 - 상가 중개, 견학컨설팅 하실분 모집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 교육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의무교육)]

◎ 모집기간
2009. 8. 10.(월) ~ 2009. 9. 4.(금)

◎ 교육비
67만원 (강의를 사하지한 이후 환불은 불가)

◎ 수강자격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지역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자산운영관리인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관련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중 관련기관, 금융기관, 개발업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종사자 등

■ 수임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개업종에 대해 집행된 사무국정에 동의한다

◎ 2009학년도 교육일정(야간반만 개설)

구분	교육일정	비고
야간반	1차 9/7~10/23 2차 11/2~12/17	월수금 오후7시부터 강의사작 (총6시간 강의)

■ 하루 8시간 강의

◎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지원자에 한하여 국내외 부동산개발 관련 시험예정(별도비용)이며, 전문기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회사 및 기관과의 Networking을 형성할 예정이다.

◎ 교육장소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grad.kr 참조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원 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부 원 장 김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장 김병철 062-233-3119

금산공인중개사

T.681-5666 H.011-601-5354
(금호동 서광주역 건너, 2순환도로변)

상무 신도림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 위치:상남동, 롯데대터건터,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역도로)

▲ 대 지:약2850㎡ 가격, 협의결정

▲ 건물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공업시설 가능

▲ 학교의 교통점(광주지정 접근성)과 5·18 광복포

▲ 광주최고의 상권, 학교의 앞자 상업지역

▲ 현재 10층 신축건물 및

24시간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대보빌딩 임대

★ 광주 최고 상권의 中心 ★
[동부경찰서~전남여고 후문 사이]

■ 최고시설의 신축 건물(지상 6층, 지하 1층)

■ 성인 학원(외국어/공무원/일반학원) 밀집지역

■ 최상의 상업 지역(아시아문화전당 입구)

■ 지하철 역세권 [아시아문화전당역(구.도형역)]

■ 편리한 주차 공간 (20대 동시 주차 가능)

■ 최신 개별냉난방 및 내부인터리어 시설 완비

■ 임대면적 : 총별 167평 (분할임대 가능)

■ 용도

- 1층 : 패스트푸드, 일반 매장, 당구장
(※ 1층 일부 편익점, 학원상당실 입주 완료)

- 3층, 4층 : 학원, 독서실, 일반 사무실
(※ 학원, 정독서실 시설 완비)

- 2층/5층/6층, 입주 완료(학원, 독서실)

임대문의 062)234-1112